



관내 동향

□ 사천시-한국항공우주산업,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식

- 사천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30일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교류 및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짐
- 본 협약을 통해 사천시는 KAI 직원·가족 및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, 맞춤 관광 상품 및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
- 협력관계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협동 사업을 발굴·추진하여, 양 기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

□ KAI, B787 날개 구조물 단종 시까지 독점 공급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가 일본 수바루(Subaru)사와 '보잉 B787' 날개 구조물 주요 부품에 대한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
- KAI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날개구조물 부품을 납품했으며, 이번 계약을 통해 2022년부터 항공기 단종 시까지 납품 계약을 연장
- 현재 환율을 적용할 시 2038년까지의 매출 규모는 약 9000억원을 거둘 것으로 예상
- 이번 계약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제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



- 보잉이 개발에 착수한 신형여객기
- 개발 명칭 : 보잉 7E7 (E: efficiency)
- 애칭 : 드림라이
- 객실 수 : 330석
- 연료 효율이 기존 여객기에 비해 20% 가량 높음

보잉 B787기



도내 동향

- **경남도, 인천국제공항공사 '항공MRO 사업' 추진 반대**
 - 도는 28일 박종원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에서 경남 항공MRO 기업 간담회를 가짐
 - 경남도는 최근 항공정비(MRO) 사업과 관련해, 사천지역 MRO사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
 - 국내 항공MRO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,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
 - 해당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고, MRO산업 중복투자 및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므로 개정안에 반대

- **경남 항공우주산업에 1조5000억 투자한다**
 - 경남도는 지역 주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성장과 세계 항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
 - 도는 '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'을 수립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
 - '2020 글로벌 항공우주산업 스마트 제조 거점 실현'을 비전으로 삼아, △항공기업 세계 경쟁력 기반 구축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△완제기 수출 활성화와 항공정비(MRO) 국제 허브화 △개인용 비행체(PAV)·도심항공운송수단(UAM) 등 미래형 비행체 개발 기반 구축 △항공우주 중소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 등 4개 분야, 68개 추진과제를 설정
 - 10년간 총 투자예상액 1조4천930억 원을 투입할 계획
 - 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 생산유발 13조9천억 원, 부가가치유발 3조9천억 원, 고용창출 4만1천 여명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



국내 동향

□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완전 해제

- 28일 한-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됨
- 기존 한-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우주발사체에 액체 연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
- 개정 이후, 기존의 액체 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(혼합형)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제약 없이 개발·생산·보유 가능
- 이번 조치로 민간 기업과 개인이 21세기 성장 동력인 우주 산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

□ 반세기의 육군 UH-1H 헬기 퇴역... '수리온'이 대체

- 52년간 대한민국 하늘을 지켜온 육군항공의 UH-1H 헬기가 퇴역하고 '수리온' 헬기가 뒤를 이음
- 그간 UH-1H 헬기의 총비행 비행시간은 79만 2천 시간, 비행거리는 1억 4천 600만km로 지구 둘레를 3천 649바퀴를 돈 것과 같음
- 퇴역한 UH-1H 헬기를 '수리온' 헬기가 대체하며, 육군은 '수리온'을 기반으로 개발한 '메디온' 헬기도 작전 배치
- UH-1H 헬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, 앞으로 육군은 '수리온'과 함께 더욱 강해진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것

□ 최초 국산 비행기 부활호, 국가과학기술자료 등록

- 현재 공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소장된 부활호가 과학·기술, 역사, 교육 등 3가지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됨
- 부활호는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보존처리, 교육자료·콘텐츠 제작, 전시 등에 활용될 예정
- 개량·복원한 부활호 2대 중 1대를 사천시청 앞 노을광장에 전시 중



해외 동향

- **항공사들의 눈물겨운 고객 모시기, 코로나 감염 시 지원**
 -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처하면서, 항공사들이 고객 모시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음
 - 중동 최대항공사인 **에미레이트항공**은 이용 승객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와 호텔 격리비용, 더 나아가 사망 시 장례비용까지 모두 제공하며 병원비의 경우 최대 2억원 까지 보장
 - 독일 항공사인 **루프트한자**는 '신속 코로나19 검사 서비스'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
 - 홍콩 항공사인 **케세이 퍼시픽**은 모든 항공권에 대해 1년간 수수료 없이 무제한 스케줄을 변경 가능

- **IATA, 2024년에 코로나19 이전 항공 교통량 회복**
 - 국제항공운송협회(IATA)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(코로나19) 여파로 급감한 항공 교통량이 2024년에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
 - IATA는 유럽 지역에서는 거의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객기 승객 수도 사상 최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
 - IATA는 고용 불안과 실직자 증가, 코로나18 감염 우려에 여행을 꺼리고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화물 운송이 항공업계의 주요 수익원이 될 것으로 예상

작성일	2020. 8. 12.(수)	보고일	2020. 8 18.(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